1958.12

한 해를 보내며

글 리 호일
그림 리 동춘

황금의 수레를 타고 해가 갑니다.
금빛을 뿌리며 한해가 달려가는데
추위 할아버지 큰 주머니를 메고
수레에서 내리며 물어 봅니다.
—너희들 무슨 일해 놓았느냐?
한해를 보내며 부끄러운 일 없었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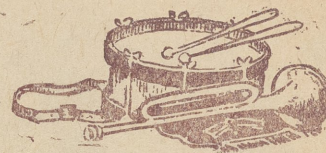
아이들은 저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부시게 흘러간 한해를 돌이켜 봅니다.
배우며 일하던 한해의 일.
꼬마 발전소를 처음 만들고
훤한 등'불로 교실을 밝히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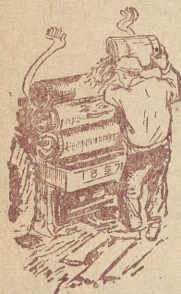
기쁜 일 생각하면 가슴이 부풉니다.
아이들이 손수 만든 꼬마 종합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세멘트며 작난'감들을
나라에 바친 자랑스럽던 일을.

생각하면 보람있게 한해를 보내건만
소년호 기중기를 선물로 보내드린
건설장 아저씨들 해놓은 일 바라보면
마음 한구석이 부끄럽기도 한데

할아버지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큰 주머니에서 선물 나눠 줍니다.
—장하다 너희들도 천리마를 탔구나!
새해는 더 많이 배우며 일해라—

할아버지는 황금수레 덩실 타고
해'님은 금빛 뿌리며 달려 가는데
아이들은 손저으며 인사를 보냅니다.
—래일의 기사로 혁신자로
우리 모두 준비를 잘 할테니
새해는 더욱 빛나는 수레를 타고
오세요—

소년단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잡지

1958년 12호 내용

—◇—

《꼬마 공장 기술자들》

◇황남 해주 교대 부속 중 학교 에서◇

본사 기자 리 종근　　　　촬영 리 종록

이 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자기들의 공작실을 《꼬마 공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들의 《꼬마 공장》을 찾아 갔을 때 이들은 마침 《꼬마 공장》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편한 옷차림에 팔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믿업고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제재기에서는 두 동무가 마주 서서 통나무를 들어 대이거나 켜 나온 널빤지를 당기거나 하며 능란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전 대패에서는 제재기에서 켜 나온 널빤지를 옮겨다 매끈하게 대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패가 너무 세게 먹지나 않는가, 너무 거칠지나 않는가, 대패날이 무디지나 않았는가 하는 것을 대패'밥을 쥐여 보고 알아 보는 것입니다.

회전 대패에서 깎은 널빤지는 다시 실톱기에 옮겨 가서 아름다운 각종 완구가 되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톱기 옆에는 목선반기가 설치되여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완구에 달 바퀴를 깎고 있었습니다.

어떤 동무는 이 네 대의 기계를 돌아 다니며 기계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따금 마치로 기계를 두드려도 보고 기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아마 기계가 갈리지 않는가를 살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꼬마 공장》에는 철공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야장'간, 볼반, 크라인다, 못을 만드는 기계 등이 설치되여 있었습니다.

——◇——

—사진 설명—

《나무를 둥글게 깎는 데도 기술이 든단다.》

야장'간에서는 시뻘겋게 달군 쇠꼬챙이를 망치로 두드려 불갈구리를 만드는 중이였습니다.

못도 만들고 볼트와 나트를 깎는 동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참으로 능란한 솜씨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큰 공장 어느 직장을 견학하는 기분에 싸여 이들의 작업을 지켜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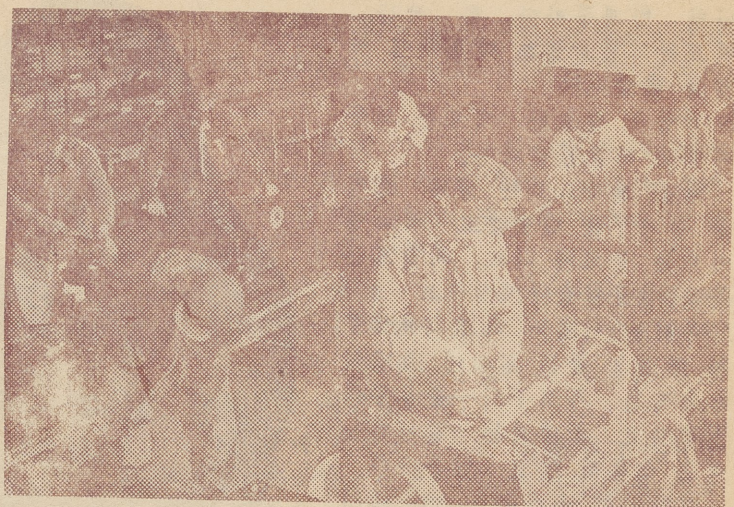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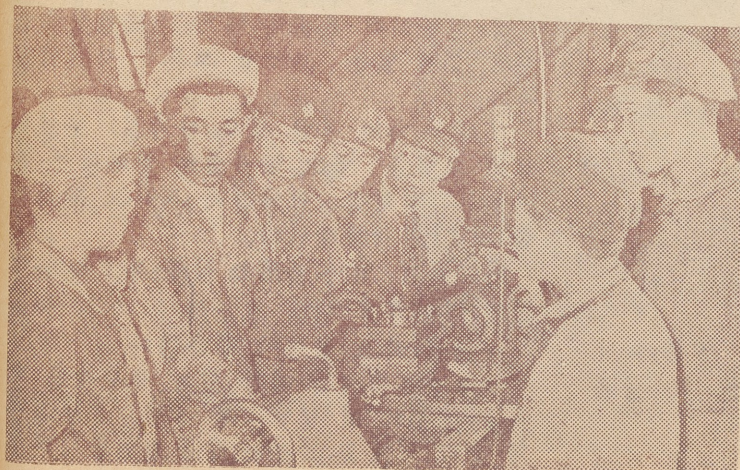
오늘 사회주의 건설을 한층 더 앞당겨 수행하라는 로동당의 호소를 받들고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고 있는 근로자 아저씨들의 뒤를 따라 배우면서 일하며 일하면서 배우는 이들을 통하여 나는 래일의 우리 조국을 바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희망과 행복에 가득 찬 이들의 모습에서 훌륭한 앞날의 기사, 기술자들을 그려 보았습니다.

정 용남 동무는 자기들의 자랑스러운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 ×

《공작실은 우리 크루쇼크원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교실입니다.

우리는 이 공작실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가며 마치, 톱, 끌, 대패 등 간단한 도구 다루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일하며, 일하면서 배운다.》

——◇——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제재기, 선반기, 실톱기 등의 동력 기계도 다룰 수 있게 되였고 야장'간에서 쇠를 달구어 여러 가지 물건들도 만들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지금 우리들은 우리의 머리와 손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힘쓰시는 근로자 아저씨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자동차 수리 공장 아저씨들에게 자동차 적재함을 만드는 데 많은 볼트와 나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신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맹상모판 문짝 만드는 데 못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완구 제작소에서도 탁아소가 늘어 가고 우리들의 생활이 높아 짐에 따라 완구가 부족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아저씨들을 도와 드릴 것을 의논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공작 시간이 끝

——◇——

←그들은 공장에 찾아 가서 기술을 배운다.

나면 방과후마다 한 시간, 때로는 일요일도 리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재료는 모두 폐품을 리용했습니다.

박판 조각으로는 삽과 호미 등 농기구를 만들었고 쇠파챙이로는 볼트와 나트, 쇠줄로는 못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건설을 돕는 일이며 앞날의 믿음직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되는 일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500 조의 볼트와 나트를 자동차 수리 공장에 보내 드려 10 대의 자동차 적재함을 조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형님들이 만들어 준 칼이 썩 잘 들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왕신 농업 협동 조합에도 랭상모판 문짝 만드는 데 필요한 못 50 키로그람을 보내 드렸습니다.

동시에 개량 호미 200 개와 호미, 삽, 낫 등 400 개에 가까운 농기구도 보내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이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배운 지식이 얼마나 훌륭하며 이것은 곧 우리의 학습이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돕는데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도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의 머리와 손으로 물건들을 만들어 보면서 로동이 얼마나 영예롭고 즐거운 것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공작실에서 배운 지식을 더 잘 다지며 학습과 생산을 결부시켜 더 훌륭히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 ×

이렇게 말하는 정 용남 동무의 두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배우며 일하며, 일하며 배우는 자랑과 기쁨이 어리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오늘 이루어 놓은 이 훌륭한 열매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나는 알게 되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까지에는 참으로 소년단원들의 많은 힘과 노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

1956년 4월까지만 해도 이 학교에는 한 대의 기계도 한 점의 도구도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대 위원회는 소년단원들의 제의에 의하여 크루쇼크를 조직하게 되였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공작실을 꾸리는 일이 중요하게 나섰습니다.

대 위원회에서는 공작실을 꾸리는 일에 전체 소년단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대 위원회의 호소에 매개 소년단원들은 자기 집에 있는 도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분단 별로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임을 열고 공작실을 꾸리려는 자기들의 계획을 이야기해 드리고 방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리하여 얼마 후에는 각종 도구들이 수많이 모아졌습니다.

공작 기계도 있어야 했습니다.

크루쇼크에서는 재간 있는 동무들인 박 성윤 동무와 최 영남, 정 용남 동무들에게 공작 기계를 갖추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수리 공장에 찾아 갔습니다. 이들은 아저씨들의 일'손을 도와 드리면서 낡은 기계 부속품을 깎아 맞추기도 했고 아저씨들에게서 직접 기계 다루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직접 선반기에서 부속품들을 깎아 공작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감격한 후원 단체와 학부형들도 공작 기계들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공작실에는 60 여 종에 800 여 점의 기계와 도구를 갖추게 되였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크루쇼크원들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일에 들어 갔습니다.

크루쇼크원들은 우선 공장 견학부터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 수리 공장, 목제품 생산 협동 조합, 철제품 생산 협동 조합 등을 견학했습니다.

이 견학에서 크루쇼크원들은 자기의 소질과 재능에 알맞는 작업을 골라 잡았습니다. 그 다음 크루쇼크에서는 자기들의 희망 대로 기술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크루쇼크원들을 네 개 조로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조는 자동차 수리 공장 선반에, 제 2조는 주물, 용접, 야장에, 제 3조는 목제품 생산 협동 조합 완구 제작부에, 제 4조는, 철제품 생산 협동 조합 농기구 제작부에 나뉘여 가서 기술을 배우게 되였습니다.

공장 아저씨들은 크루쇼크원들을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실습을 통하여 그들은 벌써 혼자서도 능히 기계를 다루며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크루쇼크원들은 공작실에 갖추어 놓은 도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배운 지식을 리용해서 여러 가지 새 방법도 생각해 냈습니다.

—◇—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 건설을 돕는 일이다. →

실톱기 같은 것은 완전히 크루쇼크에서 소년단원들의 머리로 고안해 낸 기계입니다.

그들은 배운 지식을 리용해서 새 공작 기계들을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기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도 넓히기 위해 힘썼습니다.

오늘 이 학교 크루쇼크원들은 벌써 한 가지 이상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직접 소년단원들에게 기술을 배워 주게까지 되였습니다.

학교 대 위원회에서는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졸업할 때까지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한 가지 이상 배워 가지고 나갈 것을 내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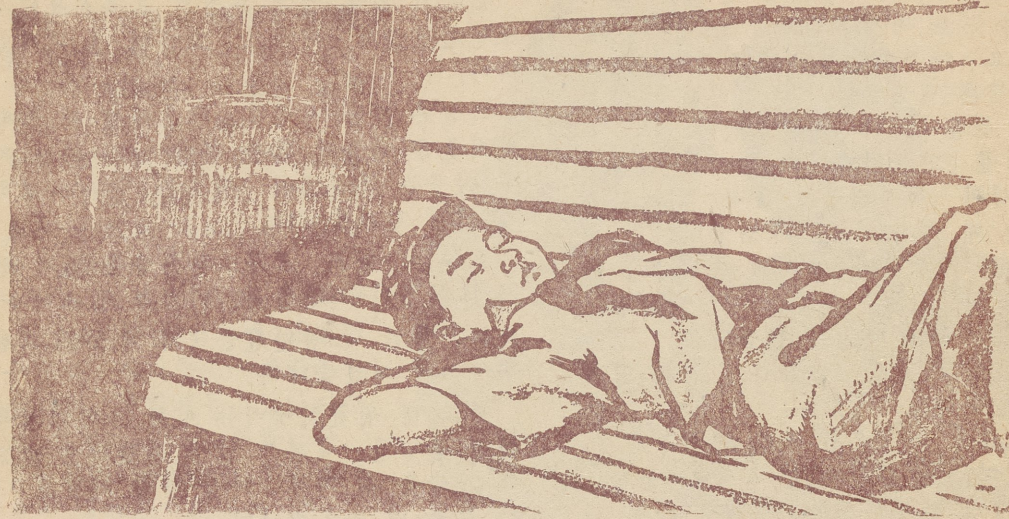
이런 결과 금년에 졸업한 박 관택 형님은 졸업하자 곧 기관구에서 기관 조수로 훌륭히 일하게 되였습니다.

크루쇼크원들은 이번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4차 회의에서 금년 11월 1일부터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고 4~5년 내에 기술 의무 교육제를 실시한다는 법령이 발표되자 더 큰 희망과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들은 기술 학교에 가서 더 많이 배워 더 훌륭히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리라는 기쁨과 희망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풍자시 2편

글 김 우 철
그림 김 맹 인

독 차 지

개성 행 밤차
도착 시간이 가까와 오는데
역전 소공원 뻰취 우에는
한 소년이 누워 있다,

차 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 와 다리쉼 하라고
분수'가에 둘러 놓은 뻰취인데
너는 저의 집 침대처럼
두 다리 쭉 뻗고 누워 있구나.

옥호동 약수에 휴양 가셨다가
이 차로 오시는 너의 아버지,
그래서 너는 마중 나왔지,
선물을 남 먼저 안아 보려고…

따라 나선 누나를 돌려 보낸 뒤
혼자서 너는 달려 나왔지.
공원 뻰취에 반듯이 누운 채
기다리다 그만 잠이 들었구나.

아버지 칭찬을 혼자만 듣으려고
제일 좋은 선물을 골라 가지려고,
차'고동 소리 고대하던 너는
생각에 지쳐 코를 고누나,

이맘 때쯤 너의 아버지는
휴양생 벗들과 나란이 앉아
래일의 증산을 서로 다지며
너희를 자랑으로 꽃을 피우리라,

여럿이 앉는 차'간 좌석을
너처럼 독차지 하지도 않고
너희 남매 귀여운 모습을
번갈아 가며 생각하실 아버지,

너에게는 그림 액틀을,
누나에겐 기념 타올을,…
골고루 나눠 줄 기쁨을 안고
마음은 평양에 벌써 닿았으리라.

그런데 너는 욕심 사납게도
뻰취를 독차지 하고 누워
제일 좋은 선물을 골라 가질
그러한 꿈을 꾸고 있겠구나,

이애야, 꿈에서 깨여나라!
남행차가 와 닿는다,
기쁨과 행복을 독차지 하지 말고
남들과 함께 나눌 줄 알아라!

영 길 이

우리 아빠트 바로 옆집엔
영길이란 학생이 살고 있다.
한반 애들의 말을 들으면
분단 모임에서 토론도 잘 하고
학과 성적도 우등이란다,

그런데 한 번은 내가
빠스를 타려고 줄에 서 있을 제
책가방 메고 달려 온 그 애
냉큼 앞질러 올라 타겠지,

빠스에 올라 흘깃 보니
그 애는 자리에 편히 앉았는데
바로 옆에는 애기 업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도 서 계시누나,

앞 줄에 앉았던 녀학생이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권한다.
그러나 할머니는 굳이 사양하고
애기 어머니에게 앉으라신다.

이럴 때 나는 영길이가
성큼 일어나서 양보할 줄 알았지,
웬걸! 그애는 고개를 돌리고
창 밖의 풍경만 바라 보누나,

손님들의 따끔한 눈초리,
영길이는 끝내 배겨 내려나?
《로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선참 토론한 자기를 느끼고
일어설가? 말가?
망서리고 있을가?

따끔 따끔 량심을 찌르리라,
소년단원의 량심을—
성큼 일어나 자리를 권하라,
그러면 어른들은 미소 가득히
사랑스런 소년단원으로 너를
바라 보리라!

공부가 끝나자 선참으로 교실을 나선 일학이와 현진이는 곧 3분단 토끼 우리에 달려 갔습니다.

그들은 토끼 우리에 들어 서기가 바쁘게 먼저 당번 일지부터 들춰 보았습니다.

《10호 토끼가 아침에 새끼를 낳았다.

18호 토끼는 계속 설사를 하였다.

다른 토끼들은 모두 건강하다.》

일지에 기록된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 보면 일학이는 《야!》하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가 지난 9월 5일 교배시킨 토끼가 예정한 날자 대로 꼭 28일 만에 새끼를 낳은 것입니다.

《몇 마리나 낳았을가?》 일학이는 더욱 궁금해 났습니다.

《얘! 현진아, 우리 몇 마리인가 들춰 볼가?》

《안돼, 어미가 새끼를 잡아 먹으면 어쩔라구》 현진이는 펄쩍 뛰였습니다.

《얘 넌 인민 학교 때 자연과에서 배운 걸 벌써 잊어 먹었구나, 어미가 새끼를 잡아 먹는건 말야 사람이 보기 때문에가 아니라 새끼 낳은 어미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심한 갈증을 견디지 못해 그만 새끼를 잡아 먹는거야.》 그는 우쭐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현진이는 《넌 한 가지만 알고 다른건 모르는 모양이구나》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봐, 털도 안난 갓난 새끼를 만지면 손에 묻어 있는 나쁜 병균들이 새끼에게 옮아가 병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현진이가 굳이 말리는 바람에 일학이는 더 보자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일학이와 현진이는 곧 토끼 시중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얘 넌 어서 새끼 낳은 10호 토끼에게 물이나 갖다 주렴, 난 18호 토끼를 가볼테야.》

이렇게 일을 분공하고 현진이는 18호 토끼집 앞에 다가 갔습니다.

18호 토끼는 여전히 설사가 멎지 않은 모양이였습니다.

기운 없이 몸을 웅크리고 앉은 토끼는 더욱 가엾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토끼집 안에는 먹다 남은 배추'잎과 고구마 덩굴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현진이는 《아니, 설사하는 토끼에게 그냥 청사료를 주었구나, 맹꽁이 같은 것들.》

그는 먼저'날 당번들을 나무래며 토끼집을 깨끗이 털어 내고 새로 두툼하게 자

리를 깔아 준 다음 말리워 두었던 아카시야 잎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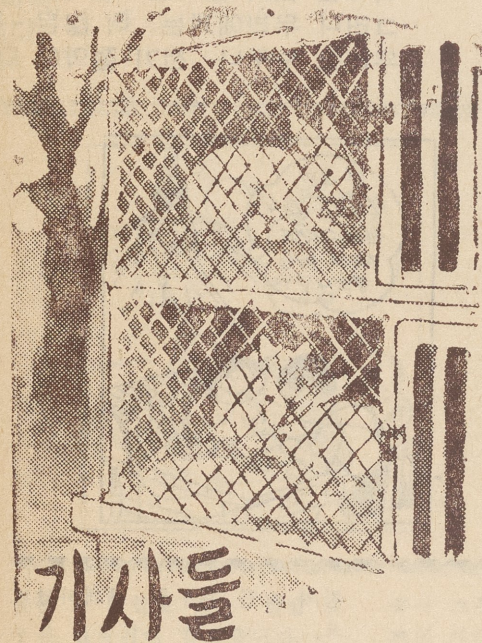
그들은 저녁 늦게까지 100여 마리의 토끼들을 하나 하나 주의 깊게 살피면서 모든 토끼에게 저녁 사료까지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벌써 토끼 관리에 퍽 능숙해 졌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처음에는 다만 기르는 재미에 열성만을 가지고 토끼를 관리해 왔었습니다.

지난 봄 분단에서는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으로 처음에 10 마리의 토끼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토끼들은 아무 탈 없이 자라면서 넉달 동안에 180 마리까지 늘어 나게 되여 분단 동무들을 한없이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우리에 습기가 차게 되자 본래 습기에 견디지 못하는 토끼들은 그만 설사에 걸려 80여 마리나 무리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그들은 처음에 이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커다란 실패에서 새로운 경험을 얻은 그들은 이 때로부터 토끼의 건강에 대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돌리게 되였습니다.

분단에서는 토끼 우리를 항상 깨끗이 청소하면서 사료의 량도 토끼의 크기에 따라 구분해 주며 토끼의 건강에 따라 청사료와 건사료를 구분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끼 우리에는 당번 일지를 만들어 두고 그 날 그 날 토끼 시중에서 진행한 일, 토끼의 발육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꼭꼭 적어 넣으면서 언제, 어느 때든지 모두가 토끼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분단 동무들에게는 날이 갈 수록 토끼의 습성과 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늘어 가게 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대에서는 순천 제1중 학교 대 동무들의 호소를 받들고 학습과 생산 활동과의 련계를 잘 짓고 그를 통해 더 잘 배우며 또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도와 토끼와 피마잠 등을 보다 대대적으로 치기 위한 문제가 의논되였습니다.

모임에서는 3분단 동무들의 훌륭한 경험을 본받아 전체 분단에서 토끼를 대대적으로 길러 내고 명년까지 학교에서 3만 7천 5백 마리의 토끼를 길러 낼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 결의 실천을 위하여 각 분단들에서는 금년 말까지 학교에서 3,000 마리의 어미 토끼를 길러 내기 위한 토끼 수집 운동이 광범히 벌어 지게 되였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는 1,100여 마리의 토끼가 수집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곽 일학 동무와 김 현진 동무를 비롯한 3분단의 많은 동무들은 각 분단 동무들에게 자기들이 토끼 관리에서 얻은 경험을 알려 주며 특히 토끼의 건강을 위해 사료의 조절을 잘해 주도록 항상 돌보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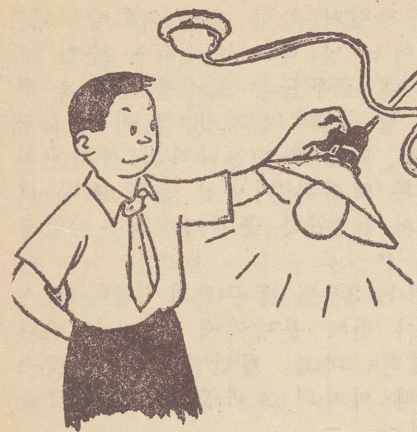
그리하여 각 분단들에서도 청사료와 건사료, 대용 사료들을 각각 마련해 두고 이 사료들을 잘 배합해 주면서 토끼 관리를 훌륭히 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제는 인민반 1학년 어린 동무들까지도 젖 떨어진 새끼 토끼에겐 감자와 호박, 무 같은 대용 사료를 잘게 썰어 먹일 줄 알게 되였고 건 사료를 먹일 때에는 물과 그리고 사료의 3% 정도의 염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그를 훌륭히 실천하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3분단 동무들이 쌓아 온 훌륭한 경험은 이 학교 대 많은 동무들에게 널리 보급되여 갔습니다.

이 《어린 축산 기사》들은 공부도 잘하고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도 훌륭히 돕는 우리 조국의 훌륭한 미래 주인공들입니다.

평남 강서 제 1 중 학교 대에서

본사 기자 신 진 균

전기를 절약 하자!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것은 전기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일을 헐하게 하고 생산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와 자동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전기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더 많은 전기가 요구된다.

우리는 누구나 전기 절약에 다 같이 나서자!

재간있는 솜씨

평천읍에서도 8 키로메터나 떨어진 산'골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촌 중학교에도 때때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 오군 합니다. 그 까닭은 이 학교의 훌륭한 공작실과 공작 크루쇼크원들의 재간 있는 솜씨들을 보기 위해서지요.

지난 봄까지만 해도 이 학교에는 크루쇼크원들이 마음 대로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공작실이 없었습니다.

산'골에 사는 이들은 큰 공장이나 생산 직장을 자주 견학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공작실이 필요했습니다.

대 위원회에서는 《교마 5개년 계획》 활동에 의하여 자기들의 손으로 우선 공작실을 훌륭히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들은 파고철 모으기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 방학부터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일용품 생산을 위한 교마 창의 고안 운동을 전개하였지요.

그 후부터 소년단원들 속에서는 녹쓴 기계 부속품과 도구

들을 모아 쓸모 있는 실습 도구를 만들기에 힘썼습니다.

채 주연 동무는 새끼 기계 부속품으로 목선반을 만들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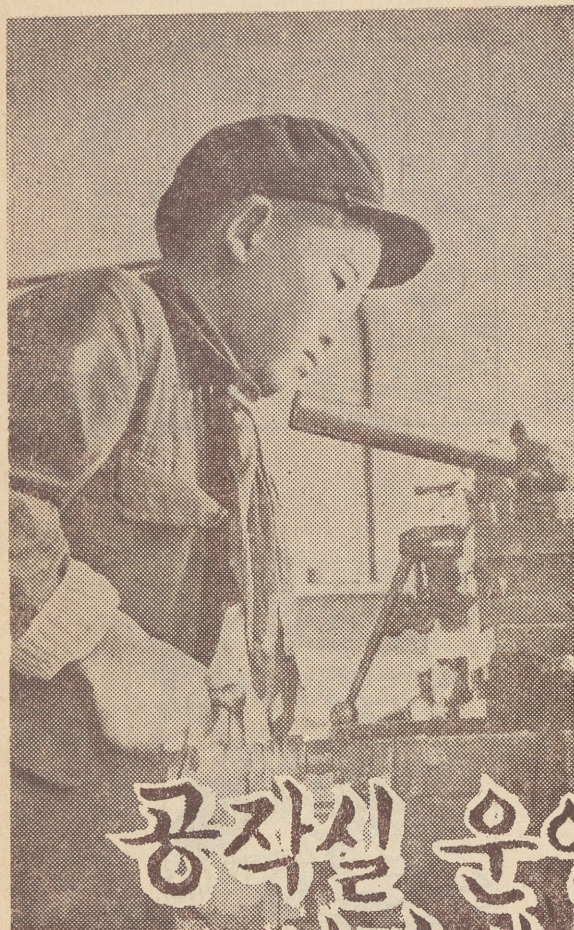
공작 크루쇼크원들은 제재기, 교마 야장'간을 만들었습니다. 새 학기에 들어 서면서 공작실에는 수 많은 실습 도구들이 장만되였습니다.

이 때부터 실습 시간에는 매 분단마다 공작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였고 방과 후엔 많은 소년단원들이 찾아 와서 실험 실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이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계수기, 호미와 낫자루, 송곳, 못, 접철 등을 만들 수 있게 되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들은 이웃에 있는 상촌 농업 협동 조합에 못 60 키로그람, 개량 호미 30 개, 풍로 2 개, 접철 20 개, 송곳 60 여 개를 만들어 선물로 보내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의 학습을 잘 도와 주고 있습니다. 이 곳 소년단원들은 자기들의 머리와 손으로 공작실을 더 잘 꾸리고 있으며 실험 실습을 하면서 더 좋은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남도 평천군
민청 위원회
리 기 춘

공작실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중앙 교육 간부 학교
량 국 재

소년단원 동무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 아저씨들은 사회주의 건설을 더 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오늘의 힘찬 혁명의 불'길을 더 한층 높이라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들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 아저씨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눈부신 속도에 발맞추어 누구나가 다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라고 하신 김 일성 수상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기술 혁명 수행에 힘차게 나섰습니다.

기술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로동자들과 농업 협동 조합원들의 로동을 헐하게 하며 우리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기술들을 더 많이 배우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영예로운 과업입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소년들은 벌써 학교 시절부터 이 기술에 대하여 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에서는 매개 소년단원들이 학습을 잘 하는 동시에 배운 지식을 실지 생산 실습을 통하여 더욱 튼튼히 다지게 하며 자기들의 이 훌륭한 희망을 이루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전체 학교 소년단 대들에서는 이미 지난 해부터 《ㅍ마 5개년 계획》 활동을 진행하면서 기본 생산 기술 교육의 수행을 도와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훌륭히 진행할 수 있을가요?

소년단원들은 기술을 배우는 교실인 공작실을 더 잘 꾸리고 그것을 보다 잘 리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공작실은 매개 소년단원들이 로동을 통하여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며 또한 자기가 이미 얻은 경험과 기술에 의하여 일정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교실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 공작실을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만들 수 있게 하며 소년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과 새 것을 만들어 내는 힘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동무들의 연구실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남포 4중 소년단원들과 같이 공작실은 자기 자체들이 꾸려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포 4중 학교 대 동무들은 소년단 모임에서 토의하고 처음에는 한두 개의 도구와 기구의 준비로부터 시작하여 자기들의 손으로 제품을 만들어 내는 한편 이미 4중을 졸업한 형님, 누나들과 공장 아저씨들과의 련계를 갖고 공작실에 필요한 기자재, 도구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유휴 자재를 수집 재생시키는 운동을 광범하게 전개한 결과 2~3 개월이 지난 후에는 훌륭하게 교내 전람회를 조직하게 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공작실 실습을 능히 보장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 내고 새로 보충하면서 꾸준히 노력한 훌륭한 미풍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년단에서는 공작실 실습을 통하여 공작 크루쇼크와 기타 기술 크루쇼크를 옳게 조직 발동시키는 문제입니다. 공작 크루쇼크의 과업은 소년들과 학생들이 가장 간단한 로동 관습들을 키우며 보통 손 도구들로써 작업하는 재간을 배우며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을 돕는 등 공작실 실습에서 배운 모든 솜씨를 더욱 세련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크루쇼크의 사업 내용은 극히 다양합니다.

우선 학과목에 필요한 직관물과 실험 실습 기구들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산수나 기하에서 요구되는 기하학 도형, 확대기들이나 물리와 자연에서 요구되는 풍차, 수차, 증기 운동의 관찰 기구, 수평기, 수준기, 원동기 모형, 흔들이, 그리고 생물과에서 요구되는 식물 표본집, 종자 수집집 및 광물 표본집, 지리에 요구되는 평면 측량기, 측각기 및 거리 측정기, 해'시계와 별시계 등 여러 가지 직관물을 제작하며 또한 직접적으로 공작실에 필요한 나무 마치, 합석 마치, 못 그릇 등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관물 제작을 통하여 그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더 잘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공작 크루쇼크에서는 이러한 직관물들을 제작하는 데만 그칠 수 없습니다. 크루쇼크에서는 이러 저러한 기술적인 모델들과 완구들을 만들며 학교 도서관의 서적들을 제본하거나 운동 기구 및 학교 비품들을 수리 제작할 수 있게 되여야 합니다.

공작 크루쇼크가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소년단실의 설비 및 장식입니다. 소년단 및 분단 기'발을 세우는 아름다운 대, 벽보판, 사진 전시판, 책꽂이와 서가, 액틀 등을 제작하는 일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공작 크루쇼크에서는 주로 손 도구를 많이 리용하여 작업합니다. 그러나 기계와 기대들을 알아야 합니다. 크루쇼크 계획에는 견학을 예견하고 진행하여야 합니

다. 례를 들면 기계 공장, 제작소, 제재소 또는 방직 공장, 농기계 임경소, 건설 직장, 가구 공장 등을 견학하여야 합니다. 견학 과정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간단한 도구들이 어떻게 가공되며 그들이 알고 있는 간단한 도구들이 복잡한 기대들과 기계들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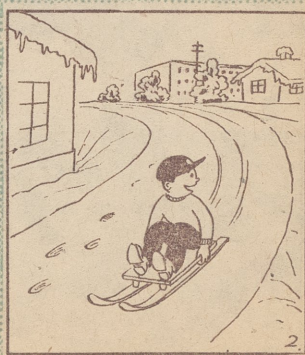
크루쇼크 사업에서는 만포군 연포 중학교 학생들과 같이 꼬마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학교에 필요한 전기를 해결하는 기술적 제반 공사에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있는 위치와 생산 환경들을 고려하여 남포 4중에서와 같이 선반 같은 기대를 다루며 더 정확하고 보다 복잡한 제품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공작 크루쇼크원들은 연구한 제반 문제들을 전체 분단 동무들에게 배워 주어야 합니다. 특히 공작실 실습 수업에서 직접 교원의 방조자로서 다른 동무들을 배워 주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크루쇼크원들을 중심으로 학교의 공작실을 준비하며 학교의 교구 비품들을 수리하는 데 소년단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년단에서는 학교 공작실을 보다 위생 문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공작실에 설치한 설비와 기자재, 기구들을 인민 군대가 무기를 귀중히 여기듯이 자기의 기술과 기능을 련마하는 무기로 되는 설비와 기자재, 기구들을 적극 애호하며 정돈하며 항상 손질하여 어느 때나 쓸 수 있는 공구로 만들어 실습에서 능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소년단원들로 공작실 당번을 조직하고 당직의 역할을 제고할 데 대한 문제들도 토의하여야 합니다. 이리하여 공작실의 설비 및 기자재, 기구들을 파손 없이 사용하며 실습에서 규률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이 규률은 자각적이여야 하며 소년단원 간에 서로 방조하며 시정해 주는 데서 보장됩니다.

끝으로 소년단에서 공작실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은 반드시 광범한 토의를 하여야 합니다. 지도 교원을 비롯하여 학급 담임과 학과 담임과의 협의 밑에 조직되는 이러 저러한 문제들을 소년단 모임에서 광범히 의논하고 보다 창의성과 적극성을 발휘시키며 분단간 경쟁을 원만하게 조직해 주며 우수한 소년단원들을 항상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학부형 및 기업소, 협동 조합의 근로자 아저씨들과 긴밀하게 련계를 가지며 항상 지도를 받는 방향에서 공작실 실습을 더 활기 있게 보장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누가 청소해 주었는가?

어느 날 늦은 저녁이였습니다. 10분단 동무들은 교실 청소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분단과 경쟁하고 있는 3분단 동무들의 교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애들이 청소를 안하구 집으로 갔구나!》 하고 모두들 웅성거렸습니다.

교실 안은 텅 비였는데 수지가 널려 있고 창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청소도 안하구 집에들 갔구나!》

《오—라 3분단 동무들은 오늘 토끼 사료를 마련하러 갔다. 우리가 도와 주자.》이것은 분단 위원장인 정 림이의 말이였습니다.

10분단 동무들은 책가방을 벗어 놓고 3분단의 청소에 달라 붙었습니다.

방과 후 토끼 사료를 마련하기 위해 먼 산에까지 갔던 3분단 동무들은 어두울 무렵에야 학교에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실은 깨끗이 청소되여 있었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모두 놀라면서 《누가 청소를 해 주었을가?》하고 눈이 둥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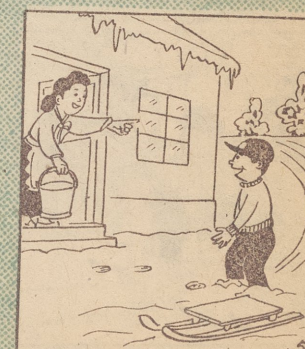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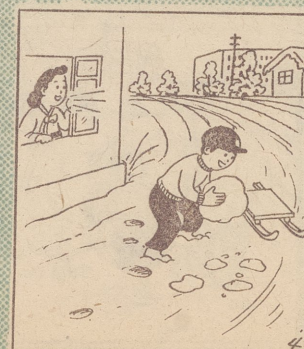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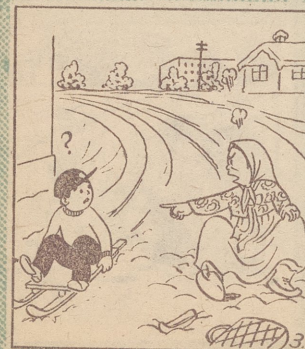
그 후 자세한 내용을 다 알게 된 3분단 동무들은 감격하여 토끼가 부족한 10분단 동무들에게 두 마리의 토끼를 선물했습니다

☆부모님들의 일을 돕는다.

8분단 김 은순 동무의 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재생 협동 조합에 출근하십니다. 어머니가 출근하시는 날부터 은순이는 집'일을 자기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는 《아침 6시에 어머니와 같이 기상하여 물을 긷는다. 7시엔 동생들을 기상시켜 세수시킨다.》 등 자기 일과표를 빈틈없이 짜 놓고 어머니를 돕는 일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에서도 최우등의 성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8분단에서는 자모회가 열렸는데 모든 어머니들이 은순이를 칭찬했습니다. 그 후 분단에서는 《은순이를 본받아 어머니들의 일을 돕고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자.》는 모임도 가졌고 벽보도 발간했습니다.

개성 사직 중 학교 대
대 위원장 림 숙자

나는 커서 무엇이 될가?

나는 선반공이 되겠습니다

본래 나는 어릴 때부터 기계 다루기를 퍽 즐겨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손 장난에만 열중했던 나머지 공부에는 노력을 덜 들여 늘 부모님한테서 꾸지람을 듣군 했습니다.

《공부를 못하고는 기계도 다룰 수 없다》고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크루쇼크에 든 후부터였습니다.

나는 한때 학교의 공작 크루쇼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자동차 수리 공장에 기술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나는 이때 이 공장 아저씨들이 짬만 있으면 기술 전습회를 열고 열심히 학습하는 것을 보군 했습니다.

이런 결과 인민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는 한 아저씨는 아주 복잡한 설계도를 놓고 선반 기계에서 제품을 깎아 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계산 문제를 술술 풀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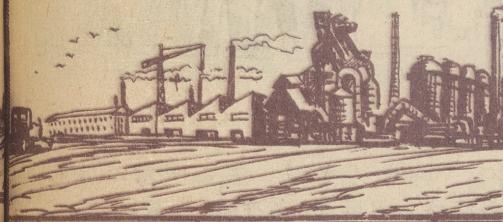
나는 차츰 기술을 배워 나가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기에는 손쉽게 기계를 깎아 내는 것 같으나 여기에는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나는 그 동안 크루쇼크에서 볼트와 나트를 수백 개나 만들어,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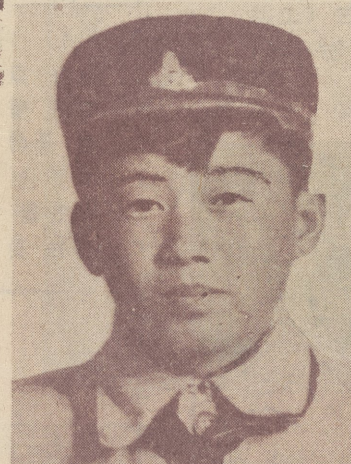
어느 날 수리 공장에 찾아 갔을 때 《저것이 네가 깎아 보낸 볼트와 나트로 만든 자동차 적재함이다.》 하고 이 곳 아저씨가 그 자동차를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나는 이때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나는 앞으로 꼭 선반공이 되렵니다.

황남 해주 교대 부속 중 학교 대
박 성윤

나는 농업 기사가 되렵니다

나는 초중에 입학한 첫 날부터 농업 기사가 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초중과 고중을 졸업한 뒤에는 농업 대학에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협동 조합을 찾아 가서 각종 곡식들의 성질, 특징, 재배법을 배우며 실험했습니다. 이때 아저씨들은 지금 로동당의 호소를 받들고 천리마를 탄 기세로 몇 배의 생산을 내고 있는 로동자 아저씨들과 같이 자기들도 몇 배의 수확을 내기 위한 실험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시험 포전에서 싱싱 자라는 곡식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그런 실험은 농업 대학을 나온 농업 기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해방 전엔 남의 소작인으로 살면서 공부도 못한 아저씨들이 오늘에 와서 일하면서 배워 모두가 기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의 형님을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초중을 졸업하고 조합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머지 않아 농업 기수가 된다고 하십니다.

나는 이때 저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없을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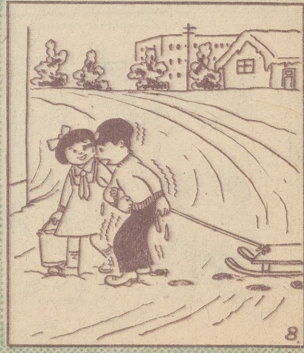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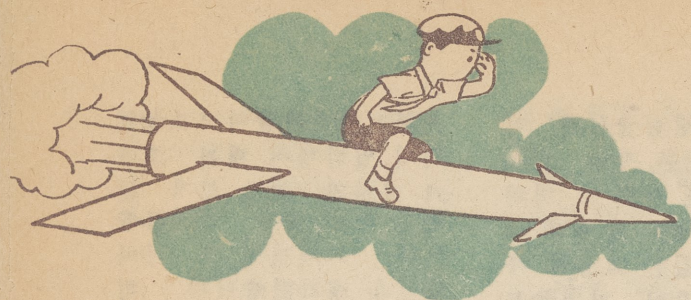
어느 날 나는 나의 희망을 어머니와 형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해방 전에는 지주놈의 소작인으로 천대 받다가 현재 작업 반장으로 일하시는 어머니는 《인민을 위한 나라에서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신성한 일이지.》하고 기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님도 《그래 우리는 훌륭한 농업 가정을 꾸리자.》라고 기뻐하십니다.

나는 지금 아침 저녁 학교에 가고 올 때면 농업 기사가 되여 일할 고향 들판을 생각해 보군 합니다.

평남 평원 고급 중 학교 대
김 기택

로케트려행 (4)

짧은 기간의 나의 쏘련 려행은 끝났습니다. 나는 다시 날개를 펴고 위대한 중국으로 날아 왔습니다. 친애하는 《소년단》의 독자 여러분 중국에서 전하는 나의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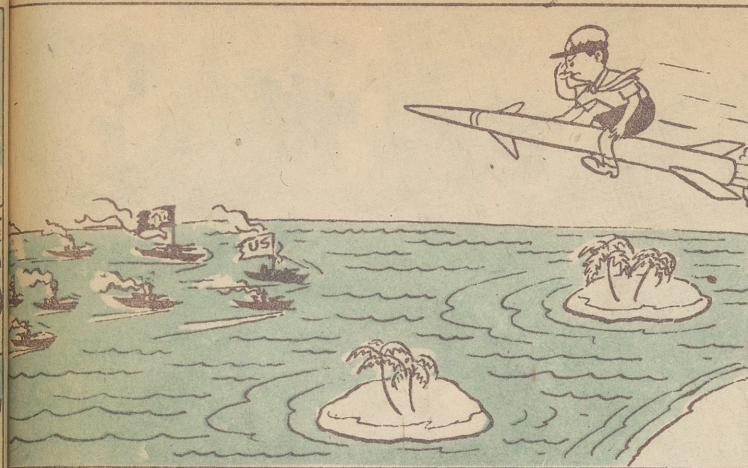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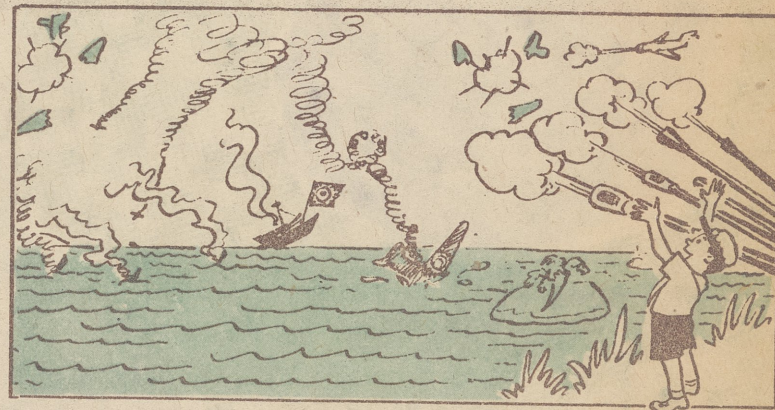
중국 땅에 들어 서면서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사회주의에로 대약진하는 중국 인민들의 눈부신 투쟁이였습니다. 소년 선봉대원 동무들도 이에 발맞춰 학습을 생산과 결부시키면서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천진시에 이르렀을 때 파당 소학교 소년 선봉대원들은 자기들이 만든 풍력 발전소를 농업 합작사 아저씨에게 증정하고 있었습니다.

《동무! 이 발전기의 힘은 얼마나 큽니까?》 그는 다음과 같이 겸손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발전기는 두개의 수차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 넓은 밭에 물을 수시로 댈 수 있지요!》

나는 다시 중국의 수도 북경으로 날아 갔습니다. 천안문 광장에 이르니 수백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 《미제는 대만에서 물러 가라!》라고 웨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미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대만을 해방하고야 말 굳은 결의들을 다지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그길로, 미제 침략자들이 비행기와 군함으로써 행패를 하고 있는 금문도와 마조도로 날아 왔습니다. 놈들은 영웅적인 중국 인민 해방군의 완강한 포화력에 겁을 먹고 쫓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만 해방을 위해서와 장 개석을 추겨 본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려는 미제 침략자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는 해방군 아저씨들에게 조선 소년단원들의 뜨거운 인사와 축하를 드렸습니다.

내가 대만 해협 상공을 날고 있을 때 바다 우에는 미군놈들의 군함들이 금문도와 마조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놈들이 아무리 함대를 끌고 덤벼 들어도 위대한 중국 인민을 놀래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원자탄도 능히 방위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통쾌하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저걸 보세요. 불'덩어리가 되여 떨어지는 장 개석 비행기들과 침몰하는 미군 군함들을…놈들이 계속 대만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면 이런 멸망의 구렁 속에 떨어질건 뻔한 일이니까요.

여기는 대만입니다. 대만에는 미제 침략자들의 군함들과 군대들이 욱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놈들에게 끌려 나온 인민들은 장 개석 도당들의 갖은 학대를 받으며 군수 물자 운반에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나는 우리 나라 남쪽 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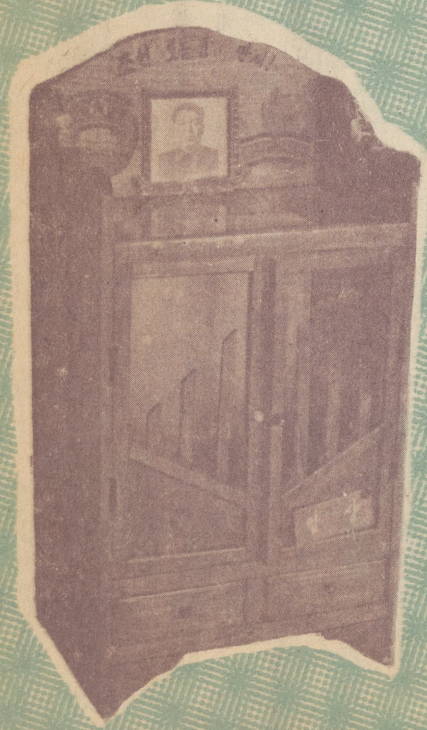
중국 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적 행동을 규탄하면서 대만 해방을 위해 일떠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 한 민주 국가들을 비롯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계 인민들도 미제의 침략적 행동을 반대하여 노도와 같이 일떠섰습니다.

《미제는 중국 땅에서 물러가라!》

이 웨침은 날이 갈 수록 더욱 거세게 일어 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솜씨

《공부하는 소년》
평양 제 43 인민 학교 4 학년
김 병 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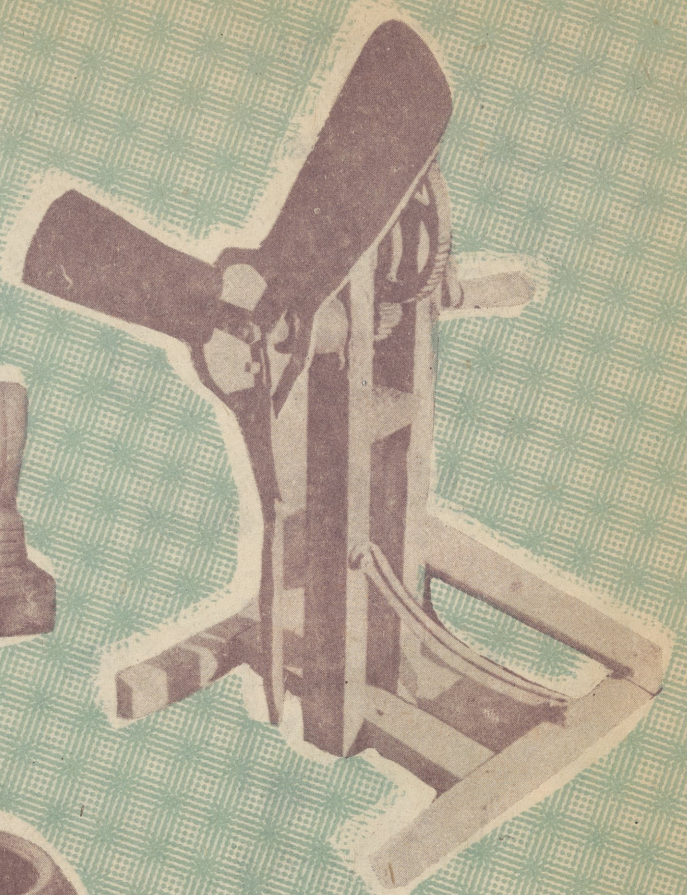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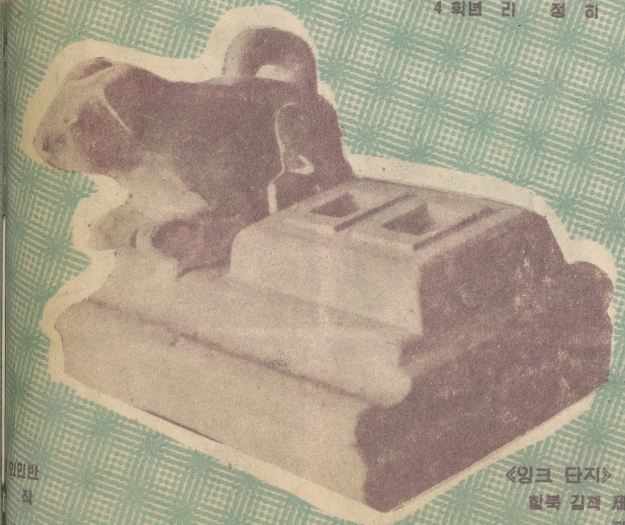
《꽃 가 방》
황남 해주시 소년들의 출품

《기 차》
량강도 백암 제 6 중 학교 초급반
1 학년 황 기 현 작

《선 풍 기》
황남 해주 교대 부속 중 학교
크루쇼크원들의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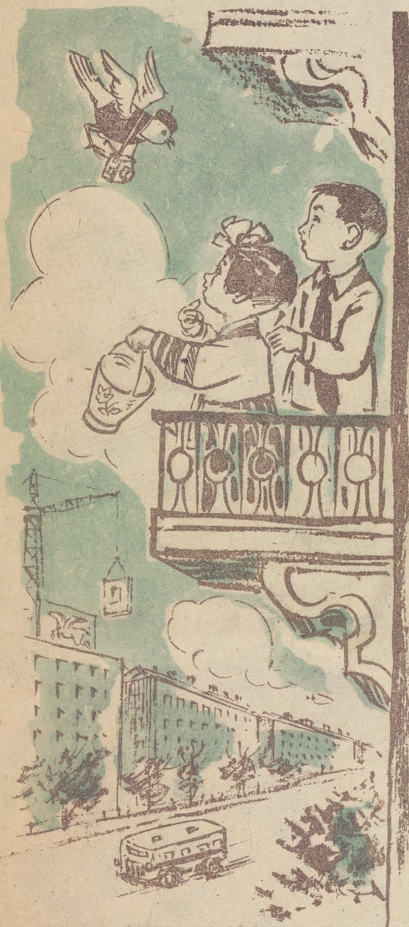
《버 선》
평북 정주 제 17 중 학교
배 애 숙 작

《항 아 리》
량강도 후창 노탄 인민 학교
4 학년 리 정 히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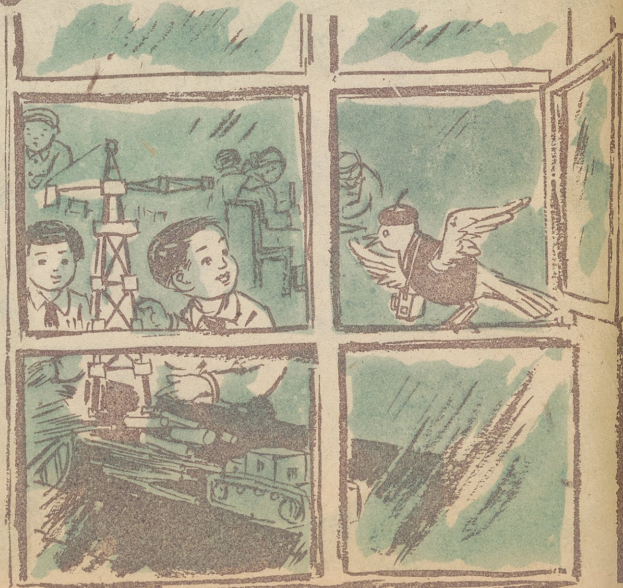
《꽃 바구니》
황남 해주시 소년들의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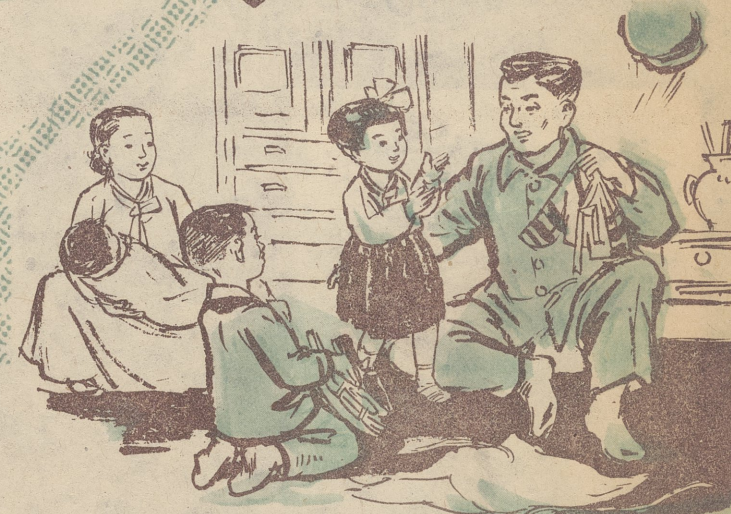
《책 장》
평남 남포 제 6 중 학교 초급반
1 학년 리 형 호 작

《고 양 이》
평남 남포 고급 인민반
4 학년 박 작

《잉크 단지》
함북 길책 제 8 중 학교
전 동 길 작

1958년도 며칠이 남지 않은 어느 날 나는 새해 맞이 준비에 한창인 우리 나라 어린이들을 만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나라 방방 곡곡을 찾아 려행을 떠났지요.

북반부에서

《애들아! 여기가 어디냐?》
《여긴 청년 거리라고 한다. 우린 바로 이 집에서 살고 있어.》
《야! 궁전 같은 집에서!…》
건설장에서 나는 평양시 소년단원들이 선물하였다는 《소년호 기중기》도 보았어요.

학교로 가는 소년단원들의 얼굴마다에서 나는 행복에 넘치는 웃음꽃을 보았어요.
공화국이 창건된지 10년 밖에 안 되였는데 11월 초하루부터는 벌써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여 이제는 중 학교에 못 가는 어린이는 한 명도 없었어요.

웡웡 모터 소리가 요란히 들려서 나는 어느 공장인가 했지요. 그런데 청진 제 2 중 학교가 아니겠어요. 지난 한해 동안에 소년단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처럼 훌륭한 공작실을 만들었어요. 새 해엔 또 《꼬마 공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완구들과 실험 기자재들을 더 많이 만들 계획이 였어요.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요.

학교마다에서는 설맞이 준비가 한창이 였습니다.
여기 저기에서는 춤과 노래를 련습하며 어떤 애들은 올까에 매달 선물도 만들고 있었어요.

《웬 가마니'더미가 이렇게 많으냐?》
《이게 다 금년에 분배 받은 쌀이란다. 우리 조합에서는 논 한 정보에서 벼 15톤을 거두었어. 모두 랭상모를 내고 밭 관수를 해서…》

영남이와 영순이는 막 손'벽을 치며 좋아 하겠지요. 웬 일인가고 엿보았더니 대안 전기 공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상금을 타 오셨군요. 글쎄 4.4분기 계획을 30%나 넘쳐 했어요.
아버지는 영남이와 영순이에게 스케트와 색동 저고리를 새해 선물로 사다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장에서는 새해 2월까지 밭과 논 관수를 위해서 농촌에 5천 대의 전동기와 변압기를 더 만들어 보내기로 했다. 로동자들은 새해에도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닫기 위해 결심들이 대단하다. 영남이도 져서는 안돼…》

《남반부 어린이들은 왜 설맞이 준비도 할 수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헐벗고 굶주려야 합니까. 미제는 하루 속히 남쪽 땅에서 물러 가야 합니다.》 천내 초등 학원에 들린 나는 동무들 앞에서 이렇게 웨치는 소년단원을 보았어요.
지금 이들은 불쌍한 남반부 동무들을 돕기 위한 모임을 하는 참이 였어요.

남반부에서

우리 조국 남쪽 땅에 날아 들자 눈에 떠운 것은 미군 양키놈들과 헌병들 그리고 어둡고 침침한 거리였어요.
《너흰 왜 이런 데서 사니?》
《전라도에서 쫓겨 온 우리들에게 어디 집이 있어야지.》
한강 백사장에는 6천 여 명이나 되는 농민들이 미군놈들에게 땅과 집을 빼앗기고 쫓겨 와서 움막을 치고 살지 않겠어요.

《너흰 이처럼 일찌기 어데로 가느냐?》
《앤 담배 팔러 가고 나는 신문 배달하러 가는 길이야.》
《그래 학교는 어떻거구?》
《학교가 다 뭐냐? 당장 먹을 것, 입을 것도 없는데.》
애들은 오돌오돌 떨면서 맥 없이 걸어 가겠지요.

경상남도 동래군 일광면 어느 국민 학교에 들린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은 하나도 없고 미군 양키놈들만 욱실거리고 있지 않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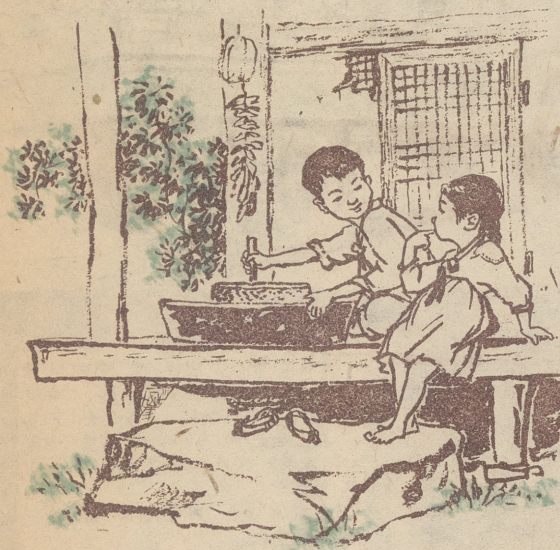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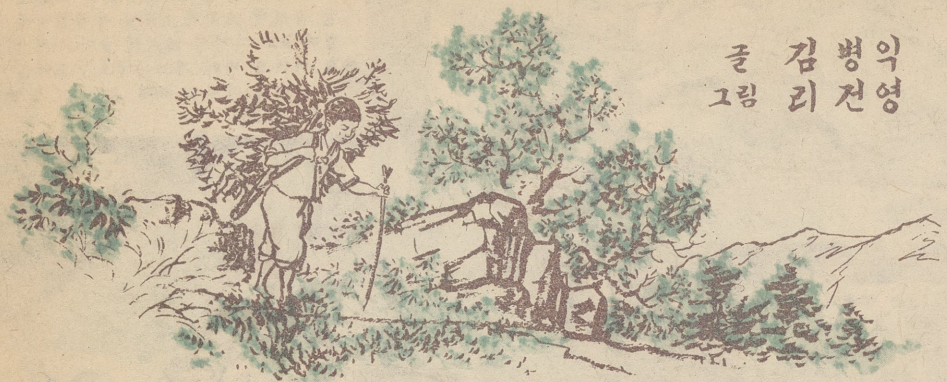
《따콩》 련거퍼 나는 총소리에 놀란 나는 두리번두리번 살펴 보았지요. 그런데 세상에 또 이런 일이 어데 있어요.
글쎄 미군 승냥이 놈들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 소년을 사격 목표로 쏘아 넘기질 않았겠어요.

미군놈들이 욱실거리는 거리에는 깡통을 차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고아들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리 승만 역도놈들은 그들을 구원할 대신에 오히려 《외국 사람들에게 부끄럽다.》고 하면서 트럭에 실어 가질 않겠어요. 어데로 데려 가느냐구요? 트럭을 막 쫓아 갔더니 전라도 60령 고개에 실어다 버리는거예요.

마산시에서 나는 리 상진이라는 고아를 만났어요.
동생 넷을 데리고 빌어 먹다 못해 굶어 죽게 된 상진이는 《내 몸을 6만 환에 사 주세요.》하고 울면서 거리를 헤매고 다니지 않겠어요.

강원도 평창군 진부 중 학교 뒤'산에 이른 나는 미군 승냥이놈들과 용감히 싸우는 로동자들과 학생들을 보았어요. 학생들은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노예 교육을 반대해서 동맹 휴학을 단행하고 있었지요.
새 해에도 이들은' 계속 싸울 결심들을 다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들의 《옛'이야기》

글 김병익
그림 리건영

1) 일찌기 아버지를 여윈 태렬이는 벌써 열살 때부터 자기 손으로 막틀이 짚신을 삼아 신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엄동 설한 눈보라가 휘몰아 칠때면 나무'짐을 진 채 구루지 산마루에서 떼굴떼굴 굴어 떨어져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2) 이른 아침 수수 강태 죽을 한 사발씩 마시고 어머니와 누나가 벌로 나가면 태렬이는 누이 동생과 함께 온종일 저녁끼니 수수를 망에다 갈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다가 허리가 까부라져 들어오면 장'독에 말라 붙은 된장'덩이를 뜯어 먹고 물을 마시군 했습니다.

3) 태렬이는 열 네살 때부터 벌써 어머니와 누나를 도와 논밭에 나갔습니다.

그때 태렬네는 지주 리 중섭이놈이 꾸며 놓은 《삼성 농장》땅 4,800평을 소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강태죽 한 사발을 먹고 나가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허리가 까부라져 들어 잠시 쉬기만 해도 십장놈은 눈을 흘기며 따귀를 갈기군 했습니다.

4) 지주네 집에서 빚내 오는 장리쌀은 (썩은 수수) 죽만 쑤어 먹어도 단 일주일도 못가 떨어지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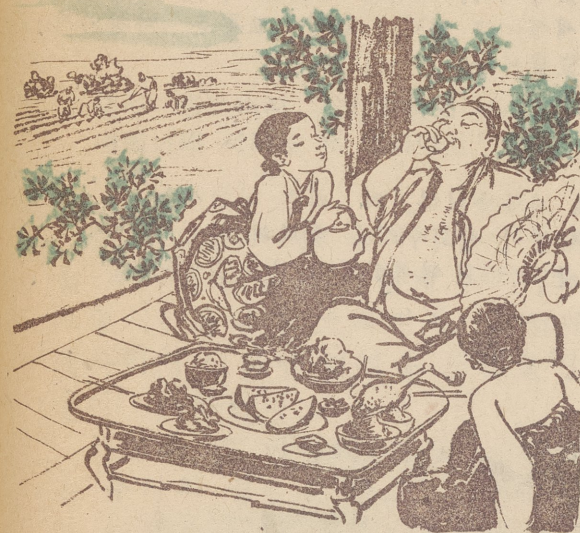
하는 수 없이 또 자루를 들고 가면 지주놈은 《모두 식충이 돼지들만 모여 사는 게로구나 엉!》하고 공짜나 주는 것처럼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렬이는 밸이 불둑불둑 났지만 어머니와 어린 동생 생각을 하고 꾹 참고 돌아서군 했습니다.

5) 지주 리 중섭은 물론이고 농장 주임 리 재이놈 그리고 서기, 지도원 십장놈들은 쩍하면 태렬이를 불러다가 나무를 꺼들이는 일, 쌀을 찧는 일, 채마밭을 다루는 일 등을 시키군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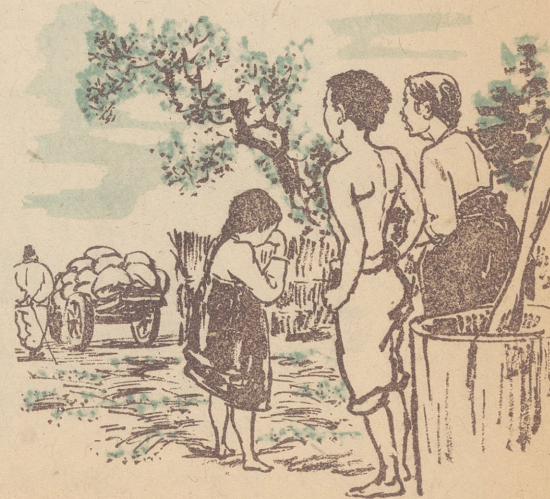
이러다가도 한 번만 사정이 있어 못 가도 땅을 떼겠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6) 농민들은 죽도 변변히 먹지 못하고 이른 새벽부터 논밭에 나가 피땀 흘려 일하는데 지주 리 중섭이란 늙은 재령강'가 놀이청에 사리원, 황주, 남포 기생들을 몰아다 놓고 새장구 놀이가 일수였습니다.

그러다가도 농민들이 그 쪽으로 곁눈질만 해도 야단 법석이 일어 났습니다.

7) 가을이 되였습니다.

태렬네는 논밭 4,800평에서 벼와 수수를 합해 모두 34 가마니를 거두었습니다.

지주놈은 타작하는 날 마당'가에서 소작료, 비료 값, 소 부린 값, 물 값, 장리쌀 값이요 하고 몽땅 빼앗아 갔습니다.

남은 것이란 북데기'더미 뿐이였습니다.

8) 여름내 지은 곡식을 깡그리 빼앗기고 난 태렬이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김을 참을 수 없어 도리깨 자루를 번쩍 들어 지주놈의 뒤'통수를 죽어라고 후려 갈겼습니다. →

9) 그 날'밤으로 태렬이는 정든 고향을 등지고 송림 제철소 로동 직장으로 뛰쳐 났습니다. 그러나 왜놈과 지주, 자본가의 세상, 그 어디에 간들 고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

10) 그러나 이것은 벌써 먼 옛날 일로 되였습니다. 리 태렬 아저씨는 모든 공화국의 품 속에서 사는 인민들이 그렇듯이 사회주의로 꽃피여 나는 농촌인 신흥 농업 협동 조합에서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

잡지 《소년단》은 이번 호부터 여러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척척 할아버지》 란을 설치합니다.

독자 여러분! 과학에 대하여 뭐든지 물어 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척척 대답해 드릴 것입니다.

영수—할아버지 오늘 아침에 서리가 내렸는데 서리는 왜 생기나요?

척척할아버지—찬 유리 창에 입김을 후—하고 불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유리가 흐려지지, 그런데 계속하여 여러번 입김을 불면 물'방울이 나타난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될가? 그것은 우리의 입김은 단순한 공기 뿐이 아니고 입김 속에는 수증기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수증기가 식으면 다시 물로 된다는 것은 너도 잘 알테지,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 봐라!

공기 속에 섞여 있는 수증기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낮에 태양이 따뜻하게 비치면 땅 우에 있는 물이 증발하여 공기 중에 많은 수증기가 섞여 있게 된다. 땅 우에 있는 모든 강, 호수, 바다들과 젖은 땅들을 생각하면 낮에 얼마나 많은 물이 증발되여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게 되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이 지고 밤이 되면 땅 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식어서 차 진다. 식어서 차게 된 돌과 풀'잎들의 곁에 있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돌과 풀'잎들에 서로 맞닿게 된다. 이것은 마치 찬 유리에 불어 준 입김이 유리 우에 이슬을 맺게 한 것과 같은 원인으로 돌이나 풀'잎 표면에 이슬을 맺게 한다.

이슬이 맺히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공기 자체가 식어져서 차지므로 그 속에 섞여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돌아 가게 되기 때

문이다.

그런데 서리는 어떻게 되여 생기는가? 서리도 이슬이 맺히는 원인들과 같다. 서리가 생길 때에는 밤'중의 온도가 심하게 내려가서 령도 이하로 되였을 때에는 수증기가 물로 될 뿐만 아니라 곧 작은 얼음 알맹이로 되여 버리면서 서리가 생기게 된다.

우리가 추운 날에 밖에서 찬 돌이나 철'덩어리를 집 안에 들여 오면 그것들의 표면에 이슬이 맺혀지는 것을 실험으로 알아 볼 수 있다.

이슬이나 서리는 하늘에서 비나 눈 오듯이 내린 것도 아니며 땅속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다. 공기중에 있던 수증기가 그 자리에서 물 또는 작은 얼음'덩어리로 맺혀진 것이다.

영수—할아버지 또 한가지 묻겠어요. 겨울에 바깥 날씨가 몹시 추울 때 유리창 안쪽 면에 꽃같은 눈의 무늬가 생기는 것은 무슨 까닭이나요?

척척 할아버지—

생각해 보렴! 그건 아주 간단하다. 뭐? 자세히 모르겠다구? 그것도 서리가 생겨나는 리치와 비슷한 원인으로 이루어진다.

겨울에 유리창 부근에 있는 공기는 몹시 랭각되여 공기 중 수증기의 일부는 작은 얼음'덩어리로 되여 언 유리 표면에 앉게 된다. 이 작은 얼음'덩어리의 모서리에 계속 작은 얼음'덩어리가 덧붙으면서 유리 우에 제멋대로 무늬를 그리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젠 알겠니?

영수—네, 할아버지 잘 알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왜 추운 날일 수록 바깥 눈 우에서 썰매는 잘 미끄러지지 않나요?

척척 할아버지—

썰매가 눈 우를 잘 미끄러지는 것은 눈(얼음도 마찬가지다)의 표면에 《기름》 같이 작용하는 물의 엷은 층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위가 너무 심할 때에는 눈 우에 이 《기름》 같은 엷은 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수— 할아버지 저 기러기는 왜 해마다 봄이면 날아 오고 겨울이 올 때면 남으로 날아 가나요?

척척 할아버지—

기러기의 고향은 본래 먼 북쪽 나라 한대 지방이란다. 여름철 기러기는 그 곳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치는데 추위가 닥쳐 오면 기러기들은 나서 자란 고향을 떠나 온 가족이 남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추위가 닥쳐 오면서 그들의 생활 조건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즉 겨울에는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던 강물, 못, 늪 등이 얼게 된다. 이렇게 모든 것이 얼고 어디나 눈이 덮이게 되면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부득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원거리 이행에서 기러기는 우리 나라를 지나 멀리 남쪽 나라에 가 겨울을 나고 다시 따뜻한 봄이 오면 고향땅 북방으로 돌아 온다. 거기는 여름이면 낮이 길고 영양물이 풍부하여 새끼 치기에 매우 유리하단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는 새들을 우리는《후조》라고 부른다.

기러기, 제비, 왜가리 등 후조들은 이렇게 여러 세대를 통하여 생활해 온 결과 이제는 그들의 이주가 한 개의 본능적인 생활로 되였다.

(그 림 리 춘 수)

영수— 할아버지 잘 알았어요. 요다음엔 더 어려운 걸 물어 볼테야요.

척척 할아버지— 어떤거든지 물어 봐라! 나는 모르는 것이 없는 척척 할아버지야.

《낯선 사람》

해가 서산 머리에 너울너울 져 갈 때에 나는 같은 분단 동무인 김 영순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 오고 있었습니다.

《지애야! 오늘 새벽에 해변'가에 찍힌 수상한 발'자국은 틀림 없는 간첩의 발'자국일거야! 아침에 자위 대장 아저씨가 그러던데 뭐》 영순이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잠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말없이 걸었습니다.

《영순아! 나도 금방 그걸 생각하던 참이야! 알아 봐야 겠어.》 얼마 후에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이 눈 앞에 가로 놓여 있는 우리 마을에서는 원쑤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강화도가 빤히 내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쑤놈들은 우리 마을 앞 바다로 기여 들군 하였습니다.

나와 영순이는 계속 바다'가에 나타난 발'자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오솔'길을 빠져서 신작로까지 나왔습니다.

문득 길'가에 서 있는 협동 조합 게시판 앞에서 웬 낯선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였습니다. 재색 양복을 입고 한 손에 전투 가방을 드리운 그 사람은 웬일인지 관리 위원회 쪽을 두리번 두리번 살펴 보더니 슬쩍 게시판 쪽에 돌아서서 무엇인가 적고 있었습니다.

《애!》 하고 나는 영순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영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들은 우정 천천히 게시판에 무엇이 붙어 있는 가를 보는 체 하면서 슬쩍 그 사람 곁으로 다가 갔습니다.

인기척을 알아 차린 낯선 사람은 흠칫하더니 얼른 수첩을 양복 주머니에 집어 넣는 것이였습니다.

《애 너의 어머니네 반이 일등이구나!》 하고 나는 우정 크게 소리쳐 말했습니다.

《너휜 이 동네 아이들이냐?》 낯선 사람은 그제야 저으기 안심한 듯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저씨는 우리 마을에 출장 오셨어요?》 내가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은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나는 얼른 그 사람의 아래 우를 쭉 훑어 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문득 그 사람의 신발짬에 끼운 모래가 눈에 띄웠습니다. 이때에 나의 머리에는 번개처럼 지나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로 오는 길에는 바다'가를 내놓고는 어디고 모래 밭이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정 게시판에 돌아 서서 그라프를 보는 체 했습니다.

낯선 사람은 몇 발'자국 옮기다 말고 다시 돌아 서며 《애들아! 한 가지 좀 물어 보자. 이 고장에 처음 와서 잘 알 수 없는데 발산리 분주소로 가자면 어데로 가니?》 하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와 함께 가십시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방향만 대여 다구, 짬을 봐서 갔다 와야 할테니.》 하고 낯선 사람은 담배를 피여 무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얼핏 성냥통이 또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집에서 쓰는 성냥통과는 색이 좀 다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저씨는 어데서 오셨어요?》 하고 나는 아까 보다도 더 친절히 물었습니다.

《도 교육부에서……》

《그럼 우리 학교에도 들리셨어요?》 이번에는 영순이가 기뻐하는 체 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협동 조합에 볼일이 있어 출장 왔다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은 우리와 함께 신작로를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농민 은행에서는 어떤데 돈을 내주지?》

《도에서 출장 온 사람들은 대개 어디서 류숙하더냐?》는 등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낯선 사람은 우리 학교 실정을 묻다 말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 너희 학교에도 인민 군대들이 오시군 하느냐?》

《그럼요, 우린 가끔 인민 군대 아저씨들을 모시고 상봉 모임도 가지는데요.》 하고 나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눈이 번쩍 빛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태연히 바다 쪽을 손질하며 《저 쪽에는 인민 군대들이 있겠군.》 하고 물었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나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얘 넌 이모네 집에 들렸다 가자면서 어쩔테냐? 빨리 갔다 오렴 기다릴게》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영순이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그러자 영순이도 인차 눈치를 채고 《정말!》 하고 달려 갔습니다.

영순이가 골목길로 빠지자 나는 낯선 사람에게 영순이가 올때까지 좀 쉬였다 갈 것을 권했습니다. 낯선 사람은 머리를 기웃둥 하더니 그러자면서 발 머리에 앉았습니다.

단 둘이서 외따른 곳에 앉아 있게 된 나는 가슴이 두군거렸습니다. 금방 나를 덥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태연해 질려고 애쓰면서 우선 그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 려인숙에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약속한 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영순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은 그만 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무슨 기미를 차렸던지 저 혼자 먼저 가겠다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놓칠가봐 별아별 구실을 다해 가며 시간을 늦추려 했습니다.

별안간 낯선 사람은 나의 손목을 덥석 틀어 쥐더니 수수밭 속으로 끌고 들어 가려 했습니다.

나는 그만 눈 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발각되였구나!》하는 생각에서 였지요.

나는 막 악을 쓰며 그 놈의 손'등을 물어 뜯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고함을 쳤습니다. 그 놈이 무엇인가 품 안에서 꺼내 들었을 때였습니다.

《손들엇!》 하는 고함 소리가 등뒤에서 들렸습니다. 내무원 아저씨들과 부락 자위대 아저씨들이였습니다.

내무원 아저씨들과 자위대 아저씨들에게 포위된 낯선 그 놈은 꼼짝도 못하고 두 손을 쳐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안 일이지만 그 놈은 미제 첩보 기관의 지시를 받고 평화스러운 우리 마을에 기여 들어 나쁜 말을 퍼뜨리며 간부들을 암살할려던 간첩놈이였습니다.

황남도 연안군 천태 중학교 데
박 지 애

(동화)

소년공과 8호기

글. 현 재덕

높은 채광창으로 밝은 해'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환한 넓은 직장 안에는 수십여 대의 로루기가 돌아 가고 있습니다. 덜그덕 덜그덕 우렁찬 소리를 내며 힘차게 돌아 갑니다.

3 교대로 나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 갑니다.

모두 5개년 계획의 성과적 달성을 위한 보람찬 희망을 안고 힘차고 우렁차게 돌아 가는 것이지요.

여기는 고무 공장 제 1 호 로루 직장입니다.

이렇게 모두 천리마와 같이 힘차게 돌아 가는 기계 가운데 그중 멎어 있는 기계 한 대가 있습니다. 8호 로루기이지요.

이 기계는 병이 나서 벌써 며칠째 돌지 못하고 멎고 있습니다. 이처럼 며칠씩이나 멎어 있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다른 기계들은 모두 그날의 과제를 넘쳐 실행하기 위해서 자랑찬 얼굴로 벙글벙글 웃으며 씩씩하게 돌아 가고 있는데, 자기만 병신처럼 멎고 있는 것이 여간 부끄럽고 괴롭지 않았지요.

요전에도 고장난 기대 책임자 아저씨는 진종일 들어 붙어

《어디가 고장이냐?》

하고 그 기계의 나사를 풀어 기계 속을 뜯어 보며 그의 병을 고치려고 여간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내 그의 병'집을 찾아 내지 못했습니다. 8호기는 무척 답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 나라가 나가고 있는 5개년 계획의 성과적 달성을 위한 길이 얼마나 빛나고 보람찬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우리 나라가 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락원이 되는 길이지요.

그래서 누구나 다 크고 자랑찬 기쁨과 희망을 안고 천리마로 달리는 것이지요.

이 보람찬 자랑, 높은 대렬에서 자기만 떨어진 8호기는 얼마나 속이 타고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다른 기계들이 기운차게 돌아 가는 것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더군다나 8호기는 해방 후부터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성있게 몸을 바쳐 싸운 영예를 가진 기계입니다. 지금도 다름 없이 그런 열의와 힘이 용솟음쳐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페물처럼 멎고 있다니요. 아아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겠어요.

점심 시간의 고동이 울자 우렁차게 돌아 가던 기계들은 일제히 발동을 멈추었습니다.

로동자 아저씨들은 식당으로 혹은 구락부로 가고 직장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11호 로루기가 울'상을 하고 있는 8호기를 바라 보며 다정히 물었습니다.

《어디가 병이 나서 그러니?》

《로루 바퀴의 기름 구멍이 막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다.》

《그거 안됐군 그래, 얼른 병을 고쳐야 할텐데.》

《그러게 말야, 오늘 같이 이런 영예로운 대렬에 참가하지 못하고 쉬고만 있는게 정말 안타까와 못견디겠어.》

《그렇지만 우리 로동자 동무들이 고장이 난채 그 대로 내버려 두질 않을거야,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렇지만 한시라도 놀고 있는게 미안해서 그렇지.》

하고 금방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을 했습니다.

《락망해서는 안돼, 우리 로동자 동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만한 고장을 못잡아 내겠니, 그건 시간 문제야.》

하고 11호기는 위로합니다.

《나도 그건 모르는 것은 아냐, 우리 로동자 동무들의 열성이 여간 아니라는 것을 말야.》

하고 8호기는 가만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때고 내 병을 고쳐 줄 기술이 능숙한 로동자 동무를 만나게 될 것이다.)

× ×

바로 어제 일입니다. 기대 책임자 아저씨는 또다시 8호기를 고쳐 보겠다고 기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는 기계 곁을 이모 저모로 면밀하게 검사해 보고 나서 내부 부속품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계 속을 샅샅이 살펴 보군 하더니

《기계 속은 아무렇지 않은데.》

하고 다시 기계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발동을 걸어 봅니다. 기계는 잠시 아무탈 없이 돌아 갑니다. 그것을 보자 로동자 아저씨는

《이만하면 고치는걸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군.》

하고 아주 자신 만만해서 일'감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8호기는 그 일'감을 해낼 기운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병'집이 남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그는 모든 정성과 열성을 기울여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일하는 사람들의 고무신'감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기도 아지 못하는 힘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러나 기름 구멍은 그대로 막혀 기름이 통하지 않는 데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디여 보려고 무척 애를 써 보았지만 종내 움직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로동자 아저씨는

《아무래도 알 수 없는데, 내 기계를 십여 년 동안이나 다뤄 보았지만 이런 기계는 처음 보겠네.》

하고 짜증을 내며

《이 기계는 낡아 못쓰게 됐다니깐 그래, 그런걸 공연한 헛수고만 했네.》

하고 투덜거리며 기대 앞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끝내 8호기를 떠나 다른 기계를 다루게 되였습니다. 또다시 8호기는 얼굴이 흐려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제 기술만 믿고 도무지 연구하려 하지 않거든, 딱한 일도 많다. 제길할거, 내가 병이 낫기만 했으면 저 영예로운 증산 운동에 앞장을 설 수 있을텐데.)

하고 그는 답답해서 속에서 불이 붙을 지경이였습니다.

× ×

그 날 어떤 나이 어린 로동자 동무가 8호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주 동무입니다. 선주 동무는 기계를 이리 저리 두들겨 보고 살펴 보고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진해서 8호기를 맡은 이상 나는 기어코 고장을 발견하고 누구에게 못지 않게 생산을 할테다!》

하고 그는 오래 동안 기계를 어루만져 봅니다. 그리고

《고장이 있기는 있을텐데 연구가 부족해서 찾아 내지 못하는거지.》

그 말을 듣고 8호기는 낯빛이 환해져서

《그 말씀이 옳소. 고장은 아주 간단한데 있습지요.》

했으나 선주가 그 말을 알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점심 싸이렌이 울리자 선주 동무는

《내가 꼭 고쳐 보아야 겠군.》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내 병이 고쳐지게 되나 보군.)

하고 8호기는 아주 대견해 했습니다. 그리고 옆의 11호기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지금 막 나간 나어린 로동자 동무 말이다. 너 그 동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응 김 선주 동무 말이냐, 알다 뿐이냐, 전에 내 협조공이 였었지. 작년에 초중을 나온 아주 열성 로동자란다.》

8호기는 열성 로동자란 말에 귀가 번쩍해서

《열성 로동자야, 그럼 내 병'집을 알아낼지 모르겠군.》

《글쎄 내 말을 들어 봐라.》

하고 11호기는 그의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주 동무는 지난날 학교에서도 학습에 열성이 였었지. 무엇에나 연구심이 많아서 학교 공작 크루쇼크에서는 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척척 연구해 만들어 내서 모든 학생들을 놀라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였거든.》

방해'군

《아주 발전성이 있군 그래.》

《그래 선주 동무는 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공장으로 나가서 기계를 다룬다고 늘 자랑스럽게 말하던 동무란다.》

《옳은 생각이로군.》

《본래 선주 동무는 3급공이였지, 그렇지만 일에 여간 열성이 아니거든. 발전이 빠르거든, 그래 지금은 4급공에 못지 않은 기능을 넉넉히 낼 수가 있단다.》

《아 그래.》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기대 책임자가 결근을 했을 때 말이다, 선주 동무는 자기가 기계를 맡아 기계를 돌리여 책임량을 넘쳐 생산한 일도 있었단다.》

《기술이 상당하군.》

《그래서 그 동무는 언제나 생각하기를—기대 하나만 맡겨 주었으면 한 번 성과를 올려 보겠는데—하고 아주 불타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란다. 그러나 일부 기능공들은 이 동무의 실력을 그다지 크게 알아 주지 않는단다. 그렇지만 이 동무는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자신을 갖고 직공장 동무한테 몇번이나 반영을 해 보았단다.》

《그래서 어떻게 되였니.》

《직공장 동무는 그의 열성을 칭찬하면서 그에게 직접 기술을 배워 주었대. 그래 아마 너를 맡아 보게 된 모양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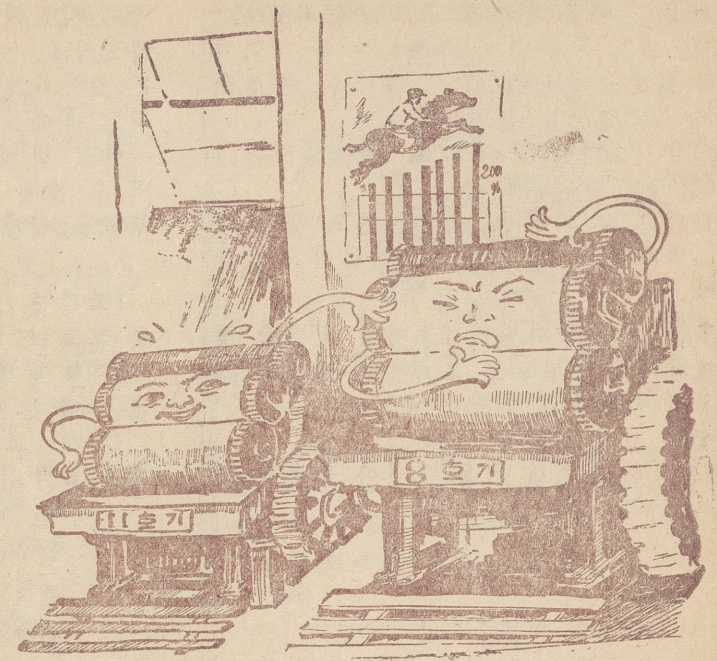
8호기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자

《그 동무가 나를 맡아 보기만 하면 꼭 내 병'집을 바루 찾아 낼 것 같은데.》

하고 마음이 저윽히 든든해졌습니다.

× ×

선주 동무는 도구들과 부속품들을 안고 돌아 오자 8호기 앞에 와서 달려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기계 주위를 말끔히 청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계의 나사를 모조리

풀어 모두 쪽쪽이 떼여 기름 속에 담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집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 보기에 열중입니다. 각메달이 닳아 떨어지게 되지나 않았을가 하고 살펴 보았지만 그것은 멀쩡합니다. 보도 같은 것이 빠져 있지나 않은가 하여 살펴 보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장이 날만한 곳을 차근차근 살펴 봅니다. 그러나 날래 병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선주 동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을 찾아 내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역시 이렇다 할만한 흠'집을 찾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이만하면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으로 풀었던 기계를 모두 맞춰 발동을 걸어 보았지요. 그러나 십 분이 못가서 그만 기계는 서 버리고 말았지요.

선주 동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쓰는 것을 보자 8호기는 정말 안타까와 볼 수가 없습니다. 말이라도 할 수 있다면

(여기요. 여기가 고장이오.)

하고 알려 줄 것인데 그것을 못하니 정말 딱한 일입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기계를 풀었다가 맞추어 돌려 보았지만 그때마다 헛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계들은 낮과 다름없이 힘차게 돌아 가고 있습니다. 기진해서 기계 우에 한 팔을 걸고 얼굴을 대고는 생각에 잠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운을 내여 선주 동무는 기계를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그마한 나사 하나에도 어디 흠'집이 없나, 하나 하나 전등'불 밑에 들고 눈을 밝혀 차근차근 부속품 하나 하나를 날카로운 눈으로 살피며 기름 걸레로 닦습니다.

그는 다시 조그마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선주 동무가 기술 학습에서 배운 중요한 대목들만 적어 두군 하는 수첩입니다.

그는 로루기의 구조를 8호기와 대조해 가며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 생각을 더듬고난 선주 동무는 이번에는 로루 바퀴에 주의를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8호기는

(옳다 이번에야 바루 짚었구나.)

하고 기뻐 날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요, 바루 거기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선주 동무는 그 바퀴를 집어 들고 한 번 기름 구멍을 살펴 보더니

《이것도 괜찮군.》

하고 도로 놓는 것이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8호기는 그만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주 동무는

《혹시나…》

하고 또다시 그 바퀴를 집어 봅니다. 그리고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해보다가 이

펀에는 그 기름 구멍을 철줄로 쑤시여 봅니다. 아니나 다를가 가운데가 꼭 막히여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 입니다. 병'집은 바로 거기였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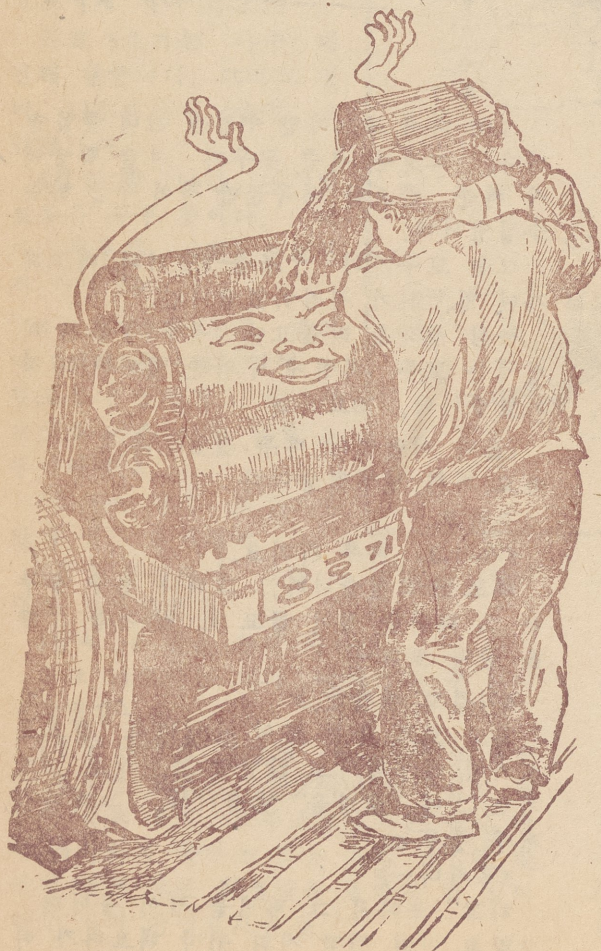
선주 동무는 큰 소리로 웨쳤습니다.

《병'집은 바로 여기다.》

그리고 그 바퀴를 가슴에 안고 춤을 추듯 뎅실뎅실 직장 안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선주 동무가 마침내 8호기의 병'집을 찾아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한 것 같은데 중간이 꽉 막혔던 것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8호기는 막혔던 기름 구멍이 뚫리여 참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인제야 몸이 가뜬해졌지요. 이제부터는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쉽게 해낼 것 같은 새로운 힘이 용솟음쳐 올랐습니다.

아침 해'살이 높은 채광창 유리를 통해서 그 앞에 서 있는 선주 동무의 름름한 얼굴을 찬란하게 비치였습니다.

× ×

8호기는 싱글싱글 웃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11호기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고치는 것을 고생을 했군 그래.》

《쉽게 고치는 것이 뭐냐, 그 동무가 밤을 꼼박 새워가며 애을 썼는데, 나는 이제 너희들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제부턴 열성껏 일을 해서 그동안 못했던 몫까지 쳐서 몇 배의 성과를 올려야겠다.》

하고 아주 자랑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서 일'감이 벙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주 동무는 하루'밤 꼼박 뜬 눈으로 새웠건만 쉴 생각도 하지 않고 일'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 만만한 얼굴로 이내 로루갈피에 배합통을 들이부었습니다. 생고무에다 약품을 섞여 먹이는 것입니다. 8호기는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입맛이 당기여 량껏 먹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5개년 계획을 성과있게 완수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더욱 그랬습니다. 그럴수록 일의 능률은 자꾸 올라 갑니다.

선주 동무는 기름이 부족하지나 않은가 또 각메달이 닳아 떨어지지나 않을가 하고 련방 주의를 날카롭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8호

기는 다른 기계 보다 훨씬 큰 힘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한 편 두 편은 삽시간에 이겨냈습니다. 배합실에서 배합통을 미처 대지 못하게 빠른 속도로 이겨냈습니다.

미처 배합통을 대지 못할 때에는 선주 동무가 손수 배합실로 뛰여 가서 배합통을 넝큼 메고 뛰여 오지요.

선주 동무는 기대 앞에서 펄펄 납읍니다. 마치 고지의 영웅 같이 용감하고 민속합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일초의 쉴 사이도 없이 작업에만 열중하는 동안 벌써 자기 책임량인 열 한 편을 넘은지가 오래입니다. 브리가다 반장이 뛰여 왔습니다.

선주 동무는 옆에 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이마에 구슬 땀을 흘리며 생고무를 먹이기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반장 동무는

《동무 참 수고하오.》

하고 격려를 합니다. 선주 동무는 유쾌한 웃음으로 그 말에 대답합니다.

마침내 교대 싸이렌이 울었습니다. 선주 동무는 16 편이란 자기 생산량을 넘어섰습니다. 바로 고지에 올라선 영웅과 같았습니다.

《김 선주 동무와 8호 로루기의 증산의 불'길은 드높아 간다.》

하고 속보에 나붙었습니다. 공장 안에서 선주 동무가 초과 생산한 자랑스러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8호기도 입가에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선주 동무 같은 열성 로동자를 만나 참 행복이다. 오늘 같이 서로 손이 맞아 일 하기만 하면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거다.》

하고 자신을 가지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기계들을 바라 보며 아주 자랑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때, 이만하면 모범 기계가 될만하지.》 이말을 받아 11호기는

《그야 물론이지 너는 우리 직장의 모범 기계다. 그러나 우리도 너한테 떨어지고 가만히 있겠니.》

하고 다른 기계들을 불러 일으켜 생산을 왁짝 올리자고 말했습니다. 다른 기계들도 이에 호응하며

《자 우리들도 8호기의 뒤를 따라 더욱 힘차게 생산을 올립시다.》

하고 모두들 기세가 높았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졸라맨 5반 반장 광남이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운동장에 나섰다. 운동장에서는 자기네 반원들이 공을 차느라 왁짜꿍 떠들고 있었다.

《이 새끼야! 빨리! 빨리! 차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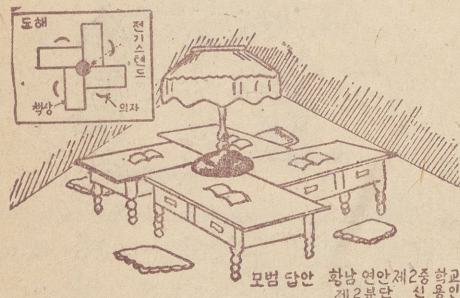
이 말을 들은 광남이는 얼굴을 찌프리며 반 동무들 앞으로 달려 갔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웨쳤다.

《애들아! 이새끼, 저새끼가 뭐야! 아이 새끼들.》

세 소년단원이 30 일간 방학 동안에 공작실에서 두 대의 선반기를 가지고 20 일간 씩 실습을 하려 합니다.

이 선반기를 어떻게 리용하면 될가요?

(1) 10호 현상 문제 답——

모범 답안 황남 연안제2중 학교 제2분단 신 용인

(2) 10호 현상 문제 당선자

평남 회창 제 6중 학교 2학년 김 병혁
함남 신창군 만춘 인민 학교 4학년 윤 종션
평북 동림군 상수 인민 학교 리 봉기
함남 수동군 제 2중 학교 2학년 김 병낙
자강도 장강군 장평 중학교 1년 박 광호
평남 순천군 봉학 중학교 2년 한 옥순
평북 선천 제14중 학교 2분단 박 봉길
자강도 초산 고중 초급반 김 정자
평북 철산군 제13 중학교 김 희자
황남 연안 제 2 중학교 2분단 신 용인
함북 김책군 6중 학교 2학년 유 정섭
황남 강령군 오봉 인민 학교 4년 강 신만
함남 홍산군 동봉 중학교 2년 박 인옥
함북 청진 제 7중학교 3학년 황 영일
함남 함흥 제 7중학교 1학년 김 순옥
황북 황주 제 1고중 초급반 1학년 최 혜숙
강원도 철원군 립석 인민 학교 김 사용
량강도 삼수 중학교 김 재별
평양 제 49 중학교 인민반 2학년 박 명숙
함북 길주 2중학교 2학년 리 영언
자강도 희천 중학교 강 혜옥
황남 안악 1중학교 4년 리 광훈

1958년 11월 1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8년 11월 22일 발행 《소년단》 1958년 제 12호 (총 110호)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1165 값 25 원 80,000부 발행

두 소년단원

그 결과

(1) 슬쩍 이렇게 하면 알게 뭐람

(2) 그럼 나도 이렇게 하거든

(3) 야! 이거 누가 이랬어?

(4) 옳지 누가 그랬나 알아 봐야지

(5) 흥!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지?

(6) 네가 이런 짓을 했구나?

(7) 우린 다 잘못했다. 용서해!

(8) 그리하여 같이 오물장에로